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8호 [무계 제23210호] 주제99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모스크바

로씨야연방 대통령

###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각하

나는 당신의 생일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 김정일 평양

주제99 (2010)년 9월 14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지방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한 중국지방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상이 선물을 올리였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상해국제우호련락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선물들을 하문국제우호련락회 회장인 리경주 대표단장과 장인 상해국제우호련락회 회장조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선물들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통반 썩아편안전보위상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을 올리였다.

선물들을 올리였다.

## 당대표자회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경사로 맞이하기 위해 총진격 앞으로!

###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할 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을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도에서 일어난 거창한 전변을 통하여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이 벌어지고있는 전후현장에서 강연과 해설담화, 학습담화의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전향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되고 있는데 대하여 실감있게 해설해주고있다. 량강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지 당조직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수발전소건설의 나날 친수지역 인민들의 살림집문제와 관련하여 혁명적인 대책을 취해주신것을 이 야기를 비롯한 수많은 감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심금을 울리는 교양사업들을 벌려도록 하고있다.

민음의 정치로 일관된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에 대하여 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야말로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이라고 되는 것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고 있다. 사리시, 곡산군, 연천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은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에게 더 잘 미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복무로서 인민을 위하여 참담하게 일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인민을 위한 교양을 띠고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귀중한 칭호를 부르며 우는 기쁨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가을걷이준비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협동농장들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낱알까지 거두어들이기 위해 미리부터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수리정비하고 탈곡기들을 보수하면서 탈곡장마당도 반듯하게 닦아놓고 로진도 로들을 수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올해에 가을과 운반, 탈곡을 동시에 진행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준비에서 농기계와 농기구준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하고있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실속있게 하는 한편 탈곡장마당도 반듯하게 닦고 로진도로들도 잘 보수하면서 가을걷이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운산군, 곡산군, 의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강병이 곡식을 실어나를수 있게 준비하고있다. 신의주시, 영주군, 철산군들에서는 농기계작업소들에서 트랙터부속품생산에 확고히 앞세우고 수리정비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하고있으며 태천군, 구성시들에서는 트랙터와 탈곡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에 대한 정비작업도 동시에 내밀어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게 준비하고있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탈곡기를 비롯한 중소농기구들에 대한 보수정비작업을

비배관리를 잘하여 수확고를 높이자면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농장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을 위한 교양을 띠고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귀중한 칭호를 부르며 우는 기쁨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남새밭관리와 비료치기

남새밭관리와 비료치기는 장려,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곳 농장들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김매기와 비료치기를 함께 하면서 비가 많이 내린 조건에서 김매기와 비료치기를 여러가지 가을남새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어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이미 마련해놓은 관수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남새밭에 물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가을남새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구역당의 농장들에서는 당면한 남새밭김매기와 비료치기를 질적으로 보장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남새가 싱싱히 자라나게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지펴올려

년간계획을 수행한 전기기계공업관리국

당창건 6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요즘 기계공업성 전기기계공업관리국에 공장들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뜻깊은 올해의 첫작년부터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 매달, 매 분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이 부분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지난 8월까지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생산액계획과 각종 전선부, 변압기 등 중요지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는 관리국에 공장들의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최첨단기술설비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낸 각종 전기기와 자체생산량은 날이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증산하고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디.》

관리국의 일군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성과에 대하여 최첨단기술설비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낸 각종 전기기와 자체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관리국에 공장들의 지표별계획수행에 힘을 넣고 중요지표들과 협동물들을 지장없이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대동강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년간 변압기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도 높이 내부에비해 적극 참가동원하여 요즘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준 각종 변압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안주전원물공장에서선 현실적조건에 맞게 생산수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작업준비를 사전에 면밀히 갖추는데 기초하여 절연물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사리원기계공장, 평양전동기공장 등에서 이달에 전례없이 높은 생산성장을 기록하며 목표에 대고조진전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과 평양전동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더 높은 로력적성과를 안고 승리의 대추진장에 들어설 각오로 최첨단기술설비, 운산공기공장에 공장사장에 보낸 분전함, 전동기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리원기계공장에서 도 배정받은 생산설비에 대해 보낸 대상설비생산수령에 박차를 가하여 실적을 부쩍 올려고있다. 당창건 65돐을 자랑한 로력적성과를 안고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걸단발발의 투쟁에 의하여 여러 마다에서는 새 기록, 새 기준이 끊임없이 창조되어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일념으로 공우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가을걷이준비를 실속있게 평안북도의 협동농장들





# 불빛 흐르는 언덕에서 만난 사람들

초 산 군 에 서

우리가 자장도의 한골인 초산군에 이르렀을 때는 하늘에 몇몇이 하나를 띄오르는 초저녁이었다. 이제 한강이만 돌아가면 초산읍이었다.

어느새 어둠이 깃을 편 산골이 길을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게 되었다. 읍지구의 야경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던 것이다.

집집의 창가들에 넘치는 밝은 불빛이 밤풍치를 뜯는 거리의 가로등들, 여기저기의 이채로운 불장식들, 읍지구의 아름다운 야경을 비껴잡고 유유히 흐르는 초산천... 에로부터 큰 나무는 얽고 잠깐 묵만 무성하고 하여 초산이라 불려왔다는 고장.

지리 못살고 초라하기 이를데 없던 그 세월의 궁벽한 산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은 어디서 못지 않은 야경까지 펼쳐진 천지개벽된 초산군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나라사랑고향마을과 산천, 자기의 일터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꽃피우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읍지구의 불빛 흐르는 언덕에 앉아 따뭇한 저녁이 초산군의

야경을 즐겁게 부감하던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는 청년들과 맞대우하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 흥건히 내뿜은 땀이 불빛에 반짝이였다. 청년들의 손바닥에는 푸르른 나무모가 들려있었다.

그들도 언덕에서 멈춰서더니 잠시 땀을 닦았다. 그때 우리 가까이 앉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건넰다.

《우리 초산에 처음 옵니까?》 청년들과 달리 그는 중년이었다. 우리의 소개를 받고난 그는 무척 반가워하며 자기는 군의 일꾼이라 하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 자랑이 늘어나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다. 그러나 흥하는 초산군의 자랑중의 자랑은 바로 저 청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그와 함께 가는 청년들은 군의 전기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공로를 세운 청년들격대원들이었다.

우리 초산군을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군으로 전변시키자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초산청년 1호발전소를 비롯하여 일대세운데 이어 초산청년 2호발전소건설에 달려나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초산군의 창조물들치고 청년들격대원들의 구슬땀이 습

베이지 않은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초산군에 찾아오시면 사회주의락원으로 아름답게 꽃피던 고향향을 보여드리자고 하면서 초산청년 1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결사전의 낮과 밤을 수놓아온 청년들격대원들, 고향향의 마지막까지 다 신경으로 전변시키기 전에는 돌격대를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벌써 여러 번이나 제대를 미루고 오늘도 발전소건설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격대원의 한 소대장이며 초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고 고향향의 산과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어온 향토의 미더운 주인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화회를 앞둔 이 시각도 그들은 머지않아 완공될 초산청년 2호발전소주변에 심을 나무모들을 띄우기 위해 하루일이 끝난 후 스스로 이렇게 수심리길을 다녀오는중이라고 그 일군은 뜨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기 고향향을 빛내이는 창조와 변혁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청년들격대원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파고들었고 그들의 생말에 의하면 초산군의 창조물들치고 청년들격대원들의 구슬땀이 습

주십시오.》

불빛 흐르는 언덕에서 우리가 청년들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시간은 걸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답게 변모될 자기 고향의 매일에 대해 신심과 광만에 넘쳐 이야기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귀전에 남아있었다.

한 청년들격대원은 초산군의 야경에 감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밤풍경이겠습니까. 낮은 낮대로 또 자랑스러운 풍치가 있습니다.》

산뜻하게 단장된 살림집들이며 일대일 도로들, 사람들의 웃음넘치는 영로각과 편의시설들, 시내가에 무지개처럼 서있는 다리... 그것 역시 이 고장 청년들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햇빛에 싸인 초산읍지를 돌아보았다. 《청년의 열정이 솟았다. 달빛아래서도 선경이고 햇빛아래서도 선경인 곳이 초산이었다.》

향토를 사랑하고 제손으로 가꿀 줄 아는 참된 주인들이 있기에 초산군의 매일은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을 꼭 소개해

# 사 과 처 녀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 백두산천지호반에서 새로운 새들 편이여 발견

백두산천지호 반에 지난 3일 간다리오 요가 처음 날아들어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이 새는 중국의 서북부지역, 까스 베헤연안, 지중해의 섬들과 아프리카, 오스트랄라이 등지에 퍼져있다. 우리 나라에는 봄, 가을에 서해의 기슭을 따라 매우 드물게 지나간다.

백두산천지호종합합체에서 관찰한 결과 간다리오의 날개길이는 25cm, 부리길이는 7cm이고 몸무게는 150g이다. 가늘고 곧은

부리를 가진 큰 새로서 대가리, 등, 허리, 몸아래쪽은 희고 날개는 검으며 다리는 붉은색이다.

천지호반에서는 이보다 앞서 알락도도 발견되었다.

더운 지방을 찾아다니는 이 새들이 백두산천지호반에 나타났것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화산분화구에 생긴 호수인 백두산 천지에서 동물들이 살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종합합체는 생태학적

고찰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천지에 산새를 퍼지었다.

종합합체는 1980년대말부터 갈매기를 비롯하여 새로운 동물들을 편이여 관찰하였다.

지난해 8월에는 각각 한쌍의 붉은배알락따따구리, 황금새가 천지호반에 날아들었다.

지금까지 수십종에 달하는 새들이 조사확인되었다.

백두산천지호반에 각종 새들이

보금자리를 잡고 있는것은 이곳이 동물들의 번데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지와 이 지구에는 여름철 새들의 먹이로 되는 70여종의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살고 나무들을 포함한 식물상 또한 다양하다.

천지호반에 생물이 날로 풍부해지고 있는것은 천혜이명산으로 이름 높은 백두산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랑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 참가자들이 1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국건설의 강화발전에 불철피운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었다.

【조선중앙통신】

# 캠보자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이 우리 나라에 위문금을 보내여왔다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캠보자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큰물피해로 막대한 물질적손실을 입은것과 관련하여 위문금을 보내여왔다.

위문금을 대왕의 위명에 따라 공 쌀을 캠보자왕궁담당 부수상이 11일 려인신이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부수상은 국왕과 대왕, 대왕후의 이름으로 조선정부와 형

제적인민에게 따뜻한 위문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위문금이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으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대왕의 의사를 전하였다.

#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 참가자들을 위한 연 회 진 행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 참가자들을 위하여 14일 평양교외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는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한 중국교육부대표단, 중국대학대표단, 중국음악학대학대표단, 중국지방국제우호연락회대표단과 주요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전국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여러 대학교

육, 판계부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호금도 동지의 건강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중국 혁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중국대학대표단 성원 리평은 이렇게 연설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며 그이께서는 모택동주석,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조중친선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대표단들은 또한 대성산혁명렬사릉, 우의탑,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한 중국대표단들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에 참가한 중국교육부대표단, 중국대학대표단, 중국음악학대학대표단, 중국지방국제우호연락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가분들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중국교육부대표단 단장 서경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시경은 만경대는 조선인민 뿐 아니라 중국인민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곳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중국 혁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중국대학대표단 성원 리평은 이렇게 연설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며 그이께서는 모택동주석,

# 우리 나라 인민보안부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회 담 진 행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인민보안부대표단과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의 회담이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도착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통반 쎡아편안전보위성 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보경 인민보안부 부부장과 짜편 와린라악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 중국에 가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출발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의 상해에서 진행되는 제4차 세계녀성대회

#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 진행

학장연단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번 연 단 은 로세대학명가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두 나라 대학원인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회합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는 황일전쟁승리를 이룩한 65돐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조중친선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주신 김일성동지께와 모택동주석, 주은래동지를 비롯한 로세대학명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서영길 중국교육부대표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로세대학명가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육기관사이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연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부부장 김일평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국로남대학 부학장 장유화, 중국로남대학 학장 정위, 중국할빈공업대학 부학장 장홍도, 중국북단대학 상무부학장 왕위평, 중국길림대학 학장 진도는 연설에서 방문기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무리에 굳게 붙잡힌 조선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은 두 나라 대학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조중친선을 발전시켜나가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의의있는 회합이었다.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로남대학 부학장 장유화, 중국로남대학 학장 정위, 중국할빈공업대학 부학장 장홍도, 중국북단대학 상무부학장 왕위평, 중국길림대학 학장 진도는 연설에서 방문기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무리에 굳게 붙잡힌 조선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단은 두 나라 대학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조중친선을 발전시켜나가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의의있는 회합이었다.



# 병사들의 어머니 애국의 길에서 보람을 찾으며

원산시 상동 22인민반 박명숙동무는 40대의 녀성이다.

하지만 그를 두고 초소의 병사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한다.

박명숙동무는 총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하고 인민의 행복도 담보된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병사들을 친자처럼 따뜻이 보살피고있으며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그는 남편과 함께 해마다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 우리 가정 원군일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걷는 원군일이 조국의 안녕과 이어져있다고 생각하며 집집마다를 마련하고 기술습을 하며 한해두해 마라수를 늘여 군인들에게 보냈고 그런 밤이면 온 가족이 원군일지를 펼치며 웃음꽃을 피우곤 하였다.

남모르는 그 수고를 다 헤아려주시며 영광의 대희에도 불려주시고 사랑의 감사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도 자랑스럽게 새겨져있는 원군일지를 보고 또 보며 오늘도 그들은 원군길을 힘차게 걸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방문하는 외부성대표단 출발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성대표단이 쿠바와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

# 성동맹대표단이 1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성대표단이 쿠바와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

# 방문하는 외부성대표단 출발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성대표단이 쿠바와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



#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

## 캄보자국왕과 대왕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축하하여 캄보자국왕국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대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어 왔다.

대형꽃바구니들의 대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캄보자국왕국왕 노로돔 시하누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캄보자국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이라고 쓰여져 있다.

국왕과 대왕의 위엄에 따라 대형꽃바구니들을 왕궁담당 국무총리 겸 총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캄보자국왕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3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증정하였다.

석상에서 국무총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노로돔 시하누크국왕과 노로돔 시하누크대왕, 노로돔 모니니에트대왕후의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여 드렸기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전체 캄보자국민은 위대한 김정일원수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영국공산당(파스-에넌주의) 중앙위원회, 이란 인민회의 민족리사회 위원장, 캄보자 국왕개인교문단 단장, 인디아의무장 국무부, 에리트의무장 등 여러 나라 정부 성, 협회와 수리아 부대총명, 위무상, 국방상, 군대 및 무장력 총참모장, 로동조합총연맹위원장, 농민총동맹위원장,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부비서와

지역지도부 조직부장, 웨남 인민회의 민족리사회 위원장, 캄보자 국왕개인교문단 단장, 인디아의무장 국무부, 에리트의무장 등 여러 나라 정부 성, 협회와 수리아 부대총명, 위무상, 국방상, 군대 및 무장력 총참모장, 로동조합총연맹위원장, 농민총동맹위원장,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부비서와

## 여러 나라 정부 성, 정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축하하여 웨남국방성, 외무부, 교통운수성, 농업 및 농촌개발성, 문화, 체육 및 관광성, 공안성 국제협력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농민동맹, 조지명박물관, 농업과학원,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 웨남조선친선협회, 웨남조선친선유지연, 웨남 비엔뎀그룹, 반 투에투자 및 기술 교류추진회사, 당풍총회사, 국제

에쓰오에쓰병원, 라오스군국전선 중앙위원회,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캄보자인민당, 푸선베드당, 외무 및 국제협조성, 국방성, 내무성, 상업성, 녜성사업성, 메히코노동당, 인민사회당, 사회주의인민당, 김일성동지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연구 메히코조정위원회, 김일성주석최고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행사들은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타이주체사상연구소, 타이조선친선협회, 타이《청산리》의 인사들과 공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로라》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방글라데슈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으로써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과 관련하여

### 방글라데슈인사 탐화 발표

방글라데슈신문정치연구소가 9월 15일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과 관련하여 6일 단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단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탄복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적방법으로 날조하였다. 일제는 비법적으로 조선을 강제적으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조선에서 반인륜적범죄를 수없이 저질렀다.

방글라데슈신문정치연구소는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뜨운데

대한데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며 국제적공평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범죄를 결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 미국교회의 무분별한 계획을 단죄

○말레이시아의무장 다독 아나파르 아만이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교회의 코란경모독식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최근 미국의 한 교회가 이라크 공용언어를 불태워버릴것이라고 공공연히 발표하였거와 관련하여 그는 이것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교회의 그릇된

시도는 자기 나라뿐만아니라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의 격분을 자아내었다고 하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슬람교국가의기구 총서기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교회의 무모한 기도예행 력히 항의하였다.

성명은 지금 국제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종교간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미국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배척될수 있는 무분별한 계획을 추구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바레인외무성이 9일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미국교회의 무분별한 계획을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 교주가 코란경을 불태울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일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러한 행위는 종교들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시위

한편 요르단의 한 이슬람교 단체는 8일 성명에서 미국교회의 당혹은 곧 이슬람교도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된다고 밝히고 이를 당장 저지시킬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31일 이라크에서 미군의 전투임무가 《종결》되었다. 이라크에 동지를 틀고있던 미군의 3분의 2이상 이 철수하였다. 앞으로 이라크에는 5만명정도의 미군이 남아있게 된다. 그들은 이라크군의 요청과 동행이 없이는 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하지 않는다.

이로써 2003년 3월에 개시된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종결》되게 되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그러면 7년이상에 걸친 미국주도하의 이라크전쟁이 과연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이라크사람인 아이사르 아드난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인들이 떠나는 이 시각 지난 시기를 돌이켜보니 악몽과 같이 느껴진다. 그 대가는 매우 막심하였다. 그 대가가 지금과 같은것이라는것을 알았더라면 미국인들이 이라크에 오기를 전혀 바라지도 않았을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써져진 후 회하며 개탄하는 그의 나이는

23살이다.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던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였다. 첼모르던 그 시절 그의 마음속에는 짜담정전시기 10여년간이나 계속된 외세의 지긋지긋한 압력과 제대로 인한 생활상 불편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차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과 미군의 강행은 아드난과 그의 가족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원이었다. 아드난의 아버지는 짜담정전에 복귀하였으나 《죄》로 일과에서 쫓겨났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것이 소문난 아드난은 대학생이 되려면 희망도 수포로 돌아갔다. 불행은 그의 집안에 줄줄이 들어닥치었다. 미군의 강행으로 인한 분과싸움으로 그의 형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의 집안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아드난은 할수없이 실업자가 된 아버지를 부양할 몫의

돈을 벌기 위해 상업에서 아득바득 일하고있다.

실로 미군강점하에서의 수년 동안 아드난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하루가 10년, 100년만 같았기의 악몽이었다.

이라크에는 아드난의 가정과 같이 불행과 재난을 당한 가정들이 부지기수이다.

오늘날 이라크사람들의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강점에 대해 도리질하고있다.

그들은 한때 미국에 환상을 가졌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나라에서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군이 하루빨리 모조리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이 언제 실현될수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아드난가정의 비극, 아이 이라크의 수많은 가정들의 비극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막심한 후파를 가져오는가를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고 망국이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조선중앙통신 전영희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이다.

조선에는 필승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이 있고 그를 핵심으로 하는 진인민적, 진국가적방위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어있으며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그 어떤 침담무기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위력한 국방공급이 있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조선은 지금 경제강국을 향하여 돌진하고있다.

이제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절명하면 조선은 명실공히 강성대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외교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반지고있는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소 직원 장 송치트 플랐은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20상상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나라를 해방하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에 구원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의 매 단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밑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이제는 필승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이 있고 그를 핵심으로 하는 진인민적, 진국가적방위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어있으며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그 어떤 침담무기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위력한 국방공급이 있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조선은 지금 경제강국을 향하여 돌진하고있다.

이제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절명하면 조선은 명실공히 강성대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외교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반지고있는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소 직원 장 송치트 플랐은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20상상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나라를 해방하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에 구원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의 매 단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밑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 나라에서 진행

이제는 필승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이 있고 그를 핵심으로 하는 진인민적, 진국가적방위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어있으며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그 어떤 침담무기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위력한 국방공급이 있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조선은 지금 경제강국을 향하여 돌진하고있다.

이제 경제강국의 목표까지 절명하면 조선은 명실공히 강성대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외교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반지고있는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타이주체사상연구소 직원 장 송치트 플랐은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20상상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나라를 해방하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에 구원하시으로써 조선혁명의 매 단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밑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

수리아대통령 바사르 알 아싸드가 7일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은 적과 맞서기 위한 기본수단이며 적과의 전투는 실지에 있어서 과학기술전이라고 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로부터 정부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 적들의 비렬한 음모와 제재책동을 규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5일 카라트방문과정에서 한 발언에서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실리권을 대대적으로 벌리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것을 바라고있지만 이란의 대응태세가 두려워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교활한 실리전에 매여달라고 경고하였다.

이란에 대한 그 어떤 군사적 공격도 지역에서 미국의 페런적외력을 허물어버리는데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중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의 위협책동을 물리치기 위해 이란정부가 지역나라들과의 협조를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제데드 알리 라메네이가 7일 한 담화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책동을 반대하는 적들의 제재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려고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적들은 경제제압력을 가하여 이란인민을 굶주리게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이란정부와 인민은 지난 수십년동안 그러한것처럼 이번에도 제재를 분쇄하여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 인재유출을 방지할데 대해 언급

네팔대통령 람 바란 아다라가 8일 국제몽땅대회에 참석하여 한 연설에서 인재유출을 방지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나라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네팔에

# 어 리 석 은 망 상

최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데 의하면 일본군부가 특상 《자위대》의 일부 무력을 미해병대처럼 만들것을 획책하고있다고 한다. 미해병대를 본따 일본특상 《자위대》무력을 《수륙방응부대》로 개편한다는것이 그의 골자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날로 로골화되는 군국화책동의 일환으로서 수수방할 문제 가 아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후 법적으로 그 어떤 전투무력도 가질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자위대》 무력을 미해병대처럼 개편하려는것은 심상치 않다. 일본반동들은 특상 《자위대》를 미해병대처럼 개편하려는 목적이 《외진 심방위》를 강화하는데 있다》는것처럼 떠들고있다.

말하자면 특상 《자위대》 서부방면대의 판할 구역에는 약 2 500개의 외진 섬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존무력만으로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이곳이 《자위대》배비의 공백지대로 되고있기때문에 특상 《자위대》의 《수륙방응부대》 재편성을 검토하는것은 불가피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특상 《자위대》 무력이 《유사시》 그 누구에 의하여 외진 섬들이 점령되는 경우 이 섬들을 바다로부터 접근하여 상륙 및 탈환하거나 후속부대를 위한 전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추자면 미해병대처럼 개편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외진 심방위》란 것이다. 오늘 일본주변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특상 《자위대》가 본따려고 하는 미해병대로 말하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이 기본이다. 미해병대는 미제의 침략전쟁과 군사간섭의 돌격대이다. 미해병대는 세계도처에서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감행하는데 언제나 악명을 떨치고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는 조선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일본특상

《자위대》가 미해병대를 본따려는것은 그들처럼 해침략의 길에 뛰어들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미해병대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본따기 위해 시도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특상 《자위대》는 2006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군사연습장에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곳에 파견된 특상 《자위대》부대는 고무보트를 리용하여 해안에 상륙하거나 총을 메고 헤엄치는것과 같은 가상훈련을 미해병대와 계속해왔다.

해외행상과 조선체제에 환장한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과 다른 주변나라들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변질나게 벌리고있다. 일본이 오는 12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데 의하면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 7함대와 일본항공 《자위대》의 전투기, 해상 《자위대》의 조기경보기가 동원된다 한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미가 처음으로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고 쟁행하는 실전연습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의 포연이 가세되기도 전에 미일이 또다시 합동군사연습을 획책하는것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특상 《자위대》의 《미해병대》와 합동군사연습책동은 일본이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전쟁마당에 뛰어들어 불운한 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의 다른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나. 군사국회화와 해외 침략책동으로 일본에 차폐될것이란 죽음과 파멸밖에 없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 우리 나라를 소개

로씨야의 이파르-따프통신이 2일 평양시 주민축산전문협동농장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조선에서 주민축산전문협동농장은 선진적인 농장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이곳에서 젓과 고기, 알뜰생선이 현지에서 장성하였으며 농장원들의 수입도 월천 늘어남에 대해 전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덕분이라고 농장의 한 관리인이 말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은 농장에는 장군님께서 농장이 축산을 전문으로 하도록 하시고 많은 집집순이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통신은 농장에서 치즈와 요그르트 등 여러가지 젓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높은

## 로 씨 야 룡 신

생산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고향산천을 더욱 잘 좋은 락원으로 꽃피우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통신은 조선지도부의 관심속에 농장의 명성은 해마다 높아지고있다. 환경이 깨끗한 이고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의 이파르-따프통신은 2일 우리 나라의 옛 무술도시 《무에도보통지》를 소개하였다.

통신은 조선의 전통적인 무술 동작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리조시기의 삽화로서 《무에도보통지》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유산의 하나라고 하면서 도시의 간행과정과 보급, 보관에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세기 초엽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강점한 일본당국은 조선에서 전통적인 민족무술기법을 전행하는것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일본군대는 조선의 력사문화재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거나 약탈해 갔다.

《리조시절》을 비롯한 회화관 도서들과 함께 《무에도보통지》의 몇부가 강탈당하였다.

그중 한부만이 발견되었다. 현재 《무에도보통지》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소중히 보관되어있다.

통신은 오늘날 태권도가 민족의 전통적인 무술로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1 000의 피스타치오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와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어난 것으로 된다.

메히외장부가 보건과 교육부 문서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3년 남짓한 기간에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 800개의 병원과 진료소들이 보수되거나 새로 건설되었다. 또한 이 기간 많은 대학이 일떠섰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 및 교육